

4월12일(월)/사도행전17:10~15

**제목: 엉터리 설교자**

테살로니가에서 도망한 바울의 일행은 베뢰아로 가서 그곳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1절). 그런데 베뢰아 사람들은 테살로니가 사람들 보다 더그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로 맞는 말인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였다(11절).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났다(12절) 그러나 여기서도 테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방해가 일어났다(13절). 바울은 다음 선교지 아테스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15절). 베뢰아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러움’ 이었다. 너그러움의 정확한 뜻은 ‘고상함’이다. 고상하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신중히 가려서 진리를 발견하여 믿었다는 뜻이다. 그들을 고상하게 만든 것은 빨리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이 맞는지 성경과 대조하여 보았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을 믿었다. 고상한 청중은 설교자의 성경 해석에 즉시 ‘아멘’ 이라고 응답하지 않는다. 고상한 청중은 끊임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설교자의 해석이 옳은지 여부를 확인한다. 요즘도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놔두고 자기 해석, 자기 주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간혹 있다. 거기에 즉시 ‘아멘’ 이라고 응답하는 신자들 때문에 계속 이런 엉터리들이 양산되고 있다.

4월13일(화)/사도행전17:16~31 (1)

**제목: 분노를 가집시다**

테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바울은 베뢰아에 모였던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 아테네에 이르렀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테를 기다리는 동안 가졌던 느낌은 분노였다(16절). 왜냐하면 각종 우상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 (23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보고 마음이 분노를 느꼈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각종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던 것 같다(22절). 아테네는 예술의 본 고장이었으며 철학과 종교의 도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오면 감명받을 만한 많은 문화 유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아테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그 재능을 타락시키고 만 것에 대하여 분노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것들이 아테네의 모든 비극을 대변해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격한 분노를 느꼈다. 우리는 어느 고대 유적지에 갔을 때 거기서 발견한 각종 불상이나 우상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가? 우리는 어느 식당이나 가정에 갔을 때 거기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가? 바울처럼 분노를 느끼며 전도에 대한 열의가 불타올라야 하지 않을까?

4월14일(수)/사도행전17:16~31 (2)

**제목: 직설적인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였을 때 에비구레오 철학자들과 스도이교 철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함과 호기심이었다(17~20절). 바울은 헬라니즘의 상징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도 설교하였다(22절). 헬라적 신관에 따라 온갖 신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혔다. 그는 아테네의 종교성을 지적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23~29절). 그리고 지적 교만으로 가득찬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정하신 사람’ (31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시행될 것을 선포하였다(31절). 바울의 설교는 아테네 철학자들의 사정을 봐주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었다. 그는 직선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고했다.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 만약에 항상 이런 류의 메시지를 매일 듣는다면 사람이 은혜 보다 율법으로 회귀되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요즘처럼 은혜와 위로 위주의 설교만을 편식하고 있는 죄의 무감각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직설적인 메시지도 가끔 들려져야 한다.

4월15일(목)/사도행전17:32~34

**제목: 우리 안에 전투성이 있습니까?**

바울의 선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어떤 이들은 조롱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였다(32절).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 일정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떠났다(33절).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 제자들을 얻게 되었다(34절). 바울은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할 때 그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굴복시켰고 핍박받을 때 그는 다시 핍박의 장소로 가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이 현학적이고 우상적이고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 아테네에서 또 한번 큰 전투를 치루고 나왔다. 아테네에 있었던 신전들, 단들, 우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세워져 있다. 우리 세대는 정신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신격화함으로 아테네를 숭배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지금도 음란을 신격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음란한 문구와 그림과 사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에비구레오 철학자들과 스도이교 철학자들이 있다. 우리 세대는 세상의 학벌과 학문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면서 너무나 조용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 바울과 같은 전투성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4월16일(금)/사도행전 18:1~4

### 제목: 교회 재정을 아끼시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다(1절). 그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로마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었다(2절).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 때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기 때문에 고린도로 온 것이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3절). 바울과 그들은 평일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다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 참석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다(4절).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일상 이었다. 왜 바울은 돈을 벌면서 선교 활동을 했을까? 그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수 일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빌4:15). 그러나 그는 가급적이면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했고 또 그것을 늘 자부했다.(살전2:9). 그는 선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게 지나친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가? 우리는 부서 일을 하면서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가? 교회 봉사자는 하나님의 돈을 항상 아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